

혼밥족·1인 가구 늘자 농축산물 소비 줄어

간편식 찾는 사람 많아 가공식품 소비 증가

곡물 소비지출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

혼자서 끼니를 해결하는 이른바 '혼밥족'이 늘면서 농축산물의 소비가 줄 것으로 나타났다. 편하게 혼자서 밥을 먹기 위해 '가정 간편식'(HMR)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농축산물의 소비가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통계청의 '201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의 농식품 및 외식 분야를 심층분석한 결과 가구당 기타식품 지출액은 전

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월평균 1만3412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 품목 19개 중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이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지출액이 2배가량 늘었다. 기타식품은 가정에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바로 먹을 수 있는 각종 즉석식품과 도시락 등의 간편식을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홀로 간편히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간편식

소비가 늘어 가계 소비지출에도 뚜렷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했다.

기타식품과 더불어 주스 및 기타음료(9.4%), 주류(8.3%), 곡물가공품(7.3%), 채소 및 채소가공품(5.7%), 육류가공품(5.2%) 등 가공식품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쌀로 대표되는 곡물 소비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한 것을 비롯해 해조류, 유지류, 과일 등 농축산물 소비는 대체로 감소했다.

육류가공품의 경우엔 서구화된 식습관과 외식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쌀은 소비가 계속 줄어드는 반면 건강식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곡물가공품은 오히려 소비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식

사비 지출은 32만229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했다. 전체 가계 소비 지출 중에서는 12.1%를 차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축산물보다는 가공식품이 가계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가계 소비 동향을 분석해 농산물 가격 변동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브렉시트 등 시장 악재 유보

2분기 기업실적 발표 기대감

코스피 2000선 안착 시도할 듯

코스피지수가 일주일만에 브렉시트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 브렉시트 투표결과가 발표된 지난달 24일의 코스피지수는 장중 100포인트가 넘는 하락을 보인후 63포인트(-3.09%) 하락해 1925포인트를 기록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하지만 브렉시트 찬성으로 국민투표결과는 나왔지만 영국이 탈퇴절차를 차기총리에게 넘기며 당장 탈퇴수순을 밟지 않고 미루는 사이 브렉시트 무효론이 나타났다. 특히 스페인의 총선결과가 금융시장에 의외로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총선결과 여당이 승리하며 금융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EU 탈퇴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었다. 또한 우리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영국이 금리인하를 시사하는 등 각국정부의 정책공조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머징국가에서 당초 영국계 자금을 중심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급격한 위험자산 축소를 우려했지만 이것도 수요일부터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수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주초 이틀간 6000억원이 넘는 순매도를 보인 외국인이 수요일부터 3일간 6천억이 넘게 다시 순매수하면서 코스피지수 반등을 주도하였다.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코스피지수는 5일연속 상승하며 브렉시트 이전인 1986.7포인트를 넘어선 1987.3포인트를 기록했다.

글로벌증시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미국 3대지수와 중국상해증시는 모두 브렉시트 이전수준까지 반등했지만 일본증시는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엔화 조강세로 수출기업의 실적악화 우려로 일본증시는 하락폭의 57%수준 반등으로 부진했고 브렉시트에 직접적인 영향권인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주요지수도 하락폭의 절반수준의 반등을 보였다.

지난주 전망에서 브렉시트 발표 후 각국정부의 정책공조에 따라 시장이 반등하면 현금비중 확대를 권유하였다. 시장은 필자의 기대보다 훨씬 큰 반등을 보였고 코스피지수는 브렉시트 발표 전 보다 상승하며 2000포인트에 근접한 상황이다.

7월 주식시장에서 시장영향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영국의 탈퇴절차 진행과 흑자 발생할 수 있는 추가탈퇴 움직임 등 여전히 브렉시트에 관심이 필요하고 7월부터 삼성전자의 실적발표로 시작되는 2분기 기업들의 실적발표도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양호한 실적발표 기대와 함께 국내기업의 2분기 실적은 유가상승과 원인 환율의 개선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반도체 화학 자동차 화장품 등 수출주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대비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악재가 잠정적으로 유보된 상황이고 양호한 기업 실적 발표로 국내증시는 다시 박스권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2분기 실적발표에 따라 종목별 움직임이 차별화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수적인 투자자는 코스피지수 기준 2000포인트이상에서는 현금비중을 확대하고 1900선

근접시에는 주식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좋아 보이며 코덱스200과 코덱스레버리지 ETF도 좋은 투자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벤츠 고객 400여명 초청 현악4중주·팝페라 공연

광주 정식 딜러 신성자동차

화정전시장에서 신차이벤트도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광주지역 정식 딜러인 신성자동차(주)는 지난 2일 화정전시장에서 '현악4중주 및 팝페라 공연'과 함께하는 The New E-class Launch Event'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한국시장에서 2009년 이후 7년만에 새롭게 출시된 10세대 'The New E-class'를 광주·전남 고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이벤트에는 신형 E-class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400여명의 고객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The New E-class는 출고에 앞서 지난 6월말까지 8000여대의사전계약을 기록해 하반기 준대형 세단 시장에 돌풍을 예고했다.

특히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해주는 '드라이브 파일럿',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을 감지해 브레이크 압력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기능 등 첨단주행



지난 2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화정전시장에서 열린 '현악4중주 및 팝페라 공연'과 함께하는 The New E-class Launch Event'에 참가한 고객들이 신형 E-class 홍보영상을 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보조시스템과 안전시스템을 결합해 안전자율주행을 향한 운전자 보조시스템의 신자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자차 보험료도 보험개발원의 차량모델

등급평가에서 2단계가 상승, 이전 모델 보다 연간 29만원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는 The New ▲E220 d ▲E300 ▲E 300 4MATIC ▲E350d ▲E

200 ▲E400 4MATIC ▲E220d 4MATIC 총 7종을 연내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문의: 광주 화정전시장 062-226-0001.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SK텔레콤 '제주도 프리' 데이터 쿠폰 출시

기본 데이터 별도 2GB 더 사용

관광객 편의위해 1·5일권 판매

SK텔레콤이 7월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도과 그 인근 도서에서 관광객이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제주도 프리' 데이터 쿠폰을 출시했다.

제주도 프리를 구매하면 사용 중인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데이터와 별도로 하루 2GB의 데이터를 더 쓸 수 있다. 2GB를 소진하면 초당 3Mb의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2GB의 데이터를 관광지 정보

검색 400여 회나 여행 사진 업로드 700여 장, 또는 24시간 스트리밍 음악 듣기가 가능한 여행의 즐거움을 높이려는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폰은 SK텔레콤 고객 전용 상품으로 1~5일권을 온라인·모바일 T월드 또는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m.tdatacoupon.co.kr)에서 구입한 후 간단한 등록 절차를 거치면 된다. 1일권의 가격은 2000원(VAT 포함)이며, 5일권은 8000원이다.

SK텔레콤은 관광객 편의를 위해 쿠폰은 온라인 오픈마켓 및 모바일 상품권 물, 여행사 홈



페이지 등에서도 판매하고 향후에는 제주도 편의점에서도 팔 예정이다.

상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9월 말까지 제주도

프리를 구입하는 고객 대상으로 쿠폰 1매를 추가로 증정하는 '제주도 프리 1+' 이벤트도 실시한다. /박기용기자 pbxer@kwangju.co.kr

늦깎이라 해도 좋다! **대학생**이라고만 불러다오!

CHANNEL 매주 토요일 밤 11시

www.ichannelA.com **채널A**